다시 첨부터 제대로 예수 믿기

(에베소서 2:1~10)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첨부터 제대로 예수 믿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다시 첨부터 제대로 예수 믿기'

십자가 복음방송 첫 번째 주일설교는 30년 전에 있었던 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년 초에 갑작스러운 유학 제안을 받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8월 말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아내의 비자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혼자 독일로 갔습니다. 가능한 빨리 박사과정 확인서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의 괴팅겐 도시에 가보니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신학을 했고 대학원에서도 신학을 마쳤고 또한 박사학위 과정이 신학과 일치한다면, 당장 박사학위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아내를 대동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여서 독일영사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독일영사관이 괴팅겐에 서류를 보낼 것이고 괴팅겐 시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독일영사관에 있는 한국사람 직원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서류의 미비가 있거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사관에서는 그런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으니 남편의 박사과정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괴팅겐의 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법은 본 적도 없다며 두 번이나 거절당했고 아내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독일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괴팅겐 시청에서는 비자발급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왜 당신이 막느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던 도중에 이 직원이 저의 약점을 알았던지 독일영사에게 책임을 넘겨버렸습니다. 독일인 영사와 직접 통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진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시에 갑자기 유학을 제안 받았기에 독일어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독일문화원의 한 코스조차 다니지 못했기에 독일 신학 책을 간신히 읽는 수준으로 유학길에 올랐었기 때문에 아직 단 한 번도 독일어로 말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데려와야 되겠고 또한 자존심은 있어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어 사전에 독작문책을 뒤져가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독일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사와 통화를 하게 되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영사는 금방 사정을 이해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거치고서야 마침내 아내가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찻길 옆의 싸구려 월세 아파트를 구해놨었는데, 그때의 아내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파트 구조가 한국과는 달랐기에 이상했던 것인지, 드디어 남편이 있는 곳에 오게 되어서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지 묘한 웃음을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하지도 못하면서 영사관에 매달렸던 이유는 울고 있던 아내의 마음이 이미 한국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교육전도사와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8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집을 비우게 되었으니 친정에 가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도 풀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에 도전해볼 수도 있었는데 아내의 마음은 아예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의 마음을 독일로 가져간 셈이 되었으니, 한국에는 아내의 마음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독일에서 유학을 마칠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람이 독일에서 일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어서 한국으로 가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포기하고 저와 함께 한국행에 올랐습니다. 계속해

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 교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독일에 들어가면 한국에 전혀 마음이 없고, 남편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자 독일에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집사람에게 남편은 마음을 전부 넣어둔 금고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보관하는 계좌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관심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듯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는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마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저의 아내가 보잘 것 없는 남편에게 마음을 준 것만큼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땅에 남아서 혼자 잘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배우자, 자녀, 건강, 돈, 사업 등에 가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껏 멀쩡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음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해왔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곧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죽었다고 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물로 번역된 원문은 '경로에서 벗어나 이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번역된 원문은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마땅히 가야할 경로를 이탈해서, 맞추어야 할 과녁을 맞히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고 맞추지 않아야 하는 표적을 맞춘 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골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골프에 대해 죽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정치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았고, 하늘에 대해 마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 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경로이자 표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만이 표적을 맞추는 것입

니다. 그런데 마음이 경로를 이탈해서 하늘로 가지 않은 것을 바울은 하늘에 대해 죽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관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공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아래에 땅이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마음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에 심장을 가리킵니다만 실제로 그곳에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층 구조의 영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의 몸은 땅에 있고 마음은 공중에 있으며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즉 세 겹으로 된 차원이 한 인간을 이루는 셈입니다.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땅에 있는 육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움직여가시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장갑'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공중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보낼 필요가 없이 육체가 있는 땅으로 보내게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마음은 온통 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가족을 대하고 친구나 친척도 만납니다. 또 육체를 통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과제를 접하게 됩니다. 또 육체를 통해 돈이나 자동차 등과 같은 사물을 만납니다. 문제는 본래 하늘을 향해야 할 마음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전혀 없기에 하늘에 대해서 죽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유혹받은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유혹 당한 마음은 전부 몸이 있는 땅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좇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지어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함을 통해 세상을 끊어내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배우자, 돈, 건강 등에 밀착되었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세상에 대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죽은 마음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깨끗

해진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마치 택배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십자가로 포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배달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곧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택배 아저씨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배달하십니다.

믿음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과 밀착된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앉히시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는 이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몸은 한국에 있으면서 마음이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세상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는 금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더는 세상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경로를 이탈한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자 더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살아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제 아내가 독일에 가있는 제게 가졌던 마음과 같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해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죽을 상황이었어도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강도는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세상과 붙어있었기에 하늘을 바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별의별

사람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인해 고작 2주의 사망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몇 개의 점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2주 동안 회계장부 한 보따리를 살펴보면서 온갖 곳에 전화를 걸며 돈을 회수하고 계셨답니다.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임박하면 마음이 밀착해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욱 강한 애착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미지의 세계로 남겨 놓은 채 모르거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삶에서 의욕이 넘치고, 세상에 대한 비전과 정열이 남아있는 이유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은 남편 믿음입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자녀 믿음입니다. 돈에 마음을 주었다면 돈 믿음입니다. 건강에 마음을 온통 쏟기도 하는데 건강 믿음입니다. 애인에게 마음을 쏟아 부으면 애인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비록 몸에 건강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에는 당연히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몸이 살아있는 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이기는 것은 몸이 있는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지배 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늘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루터도 "회개를 습관화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회개를 습관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회개를 습관화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회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음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 마음은 끊임없이 육체로 만나는 세상 것들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 마음이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까? 돈 문제가 생겨도 믿음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돈 문제에서 마음을 빼내서 예수님께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고 건강에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려면 이탈했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 문제들에 마음이 달라붙은 채로 씨름을 하면 마음에서 하늘을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내는 것이 됩니다.

한 마디로 이 세상에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잘 잡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차고서야 겨우 일어나서도 꿈인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셨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습니다. 애초에 사는 게 마음이 없었으니 죽는다고 해도 반가울 뿐입니다.

제 아내가 '박사과정의 증명서가 없어도 비자발급이 된다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었던 저의 집사람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던 것도 이와 상통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 없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지구에서의 밤을 편하게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렸으니 세상에 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8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택배 아저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일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기 위한 저수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마음이 없기에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진정한 맡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어린 시절 일화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 연희동에서 살았습니다. 신작로 양 옆으로 집이 쭉 있었는데 한 집에 아주 사

나운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에게 돌을 던지면 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줄이 풀려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나운 개가 저를 물기 위해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옵니다. 그때에 젖 먹던 힘으로 도망을 가면서 식모 누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순이 누나! 다순이 누나!'하고 소리를 지르면 누나가 빨래방망이와 연탄집게를 양손에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나운 개보다도 더 무서운 기세로 개를 쫓아냅니다. 그럴 때에 저는 누나 뒤에 숨어서 허리를 붙잡고 개의 흉내를 내면서 멍멍 소리를 지르면 개가 도망을 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닮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내 마음을 물려고 달려드는 개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본래 좋거나 나쁨이 없는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문제를 끌어안게 만듭니다. 그렇게 끌어안은 문제들은 내 마음을 물어뜯는 개가 됩니다.

근심은 곧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개와 같은 문제가 나를 질경질경 씹도록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분노 질투 등의 감정들은 이렇게 사나운 개 같은 세상의 문제를 마음으로 끌어안았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면 으레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를 안아서는 안 됩니다. 개가 나를 물고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을 물어뜯는 개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든 돈으로 생긴 문제든 모든 문제는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은 나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을수록 아플 뿐입니다. 개를 피해 다순이 누나에게로 도망을 가듯이, 문제를 피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도망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도망가는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택배로 하나님께 보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연관성 안에 남은 문제를 상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순이 누나가 빨래방망이와 부지깽이를 들고 개를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상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을 애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마음으로는 돈 문제나 건강문제 등을 끌어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는 내 마음을 질경질경 씹으면서 아픔을 주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어떤 문제도 맡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개와 같은 문제가 나를 물고 있으니 그저 무섭고 떨립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답은 주어지지

않으니 '주여! 주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며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와 같은 문제를 놓아버리고 예수님께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로 여기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문제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돈 문제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희 큰 외삼촌께서 요절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아는 동네 사람 둘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휘두른 장작에 맞아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개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휘두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너무도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망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낼 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내가 끌어안은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시편 55장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끌어안고 있는 세상 문제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탑승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면, 내가 가져온 짐을 처리하는 것은 승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권과 티켓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맡기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먼저 짐을 맡아달라고 재촉한다면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까? 나는 비행기를 탈 생각이 없는데 승무원들에게 짐만 맡아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권과 티켓을 제시하면 짐은 자연히 승무원의 몫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내 삶의 짐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삶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맡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로 도망쳐야 합니다. 십자가로 도망간 나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삶의 문제는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내려놓다'라는 말에는 여전히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

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나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길을 따르느냐,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바른 길을 따르느냐를 기다리면서 보고 계십니다. 이 바른 길을 외면한다면 내려놓으라는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에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의 건강 문제는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뜻대로 해나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죽이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실컷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리신다면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더욱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다시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서 처리해나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싫든 좋든 육체적으로 로마와 연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육체 연관성 안에 있는 로마를 남겨두고 다 마음이 하늘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주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작 로마 인구의 9%밖에 되지 않았지만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나라 문제 등의 육체의 연관성 안에 있다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개 같은 문제들이 나를 물려고 쫓아올 때에 주님의 십자가로 도망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의 개와 대면하시고 해결해나가실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를 안 믿으시겠습니까?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계속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마귀의 힘은 끊어지고 밀착되었던 세상의 문제들 또한 떨어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지 않은 세상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나가시든지 또 나를 장갑 삼아서 하시든지 보시기에 좋도록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드리는 것뿐인데 결과는 혁명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문제만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부간에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만 하실 것입니까? 육체의 연관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십자가로 도망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맡기면 배우자나 자녀 혹은 건강 등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맡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주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느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다면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 믿음이 아니라 세상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 이제까지 잘해오셨다면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예수님 믿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교계 원로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니 어떻게 보면 무시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을 한경직 목사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죽을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을 주는 세상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동안에, 육체의 연관성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예수를 잘 믿도록 십자가 생활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